

# ‘구례 양수발전소 유치’ 주민 출연 홍보영상 호응

유튜브 조회 4000회 돌파  
응원댓글 채도 “유치 지원”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소 대상지가 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례군 주민들이 출연한 홍보영상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구례군에 따르면 11월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 구례양수발전소 유치 홍보영상의 조회수가 4000회를 넘어섰다. 360개가 넘는 응원 댓글이 달리면서 구례 양수발전소 유치 노력에 관심을 표명했다.

유튜브 외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릴스 영상 조회수까지 더하면 1만 회가 넘는다.

네티즌들은 “양수발전소에 대해 몰랐는데 너무 쉽게 이해됐다”, “구례군 문척

면 어르신들 바람대로 양수발전소가 꼭 유치됐으면 좋겠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는 따뜻한 영상이다”, “양수 is 구례 하이팅” 등의 반응을 남겼다.

구례양수발전소 유치와 영상 속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도 했다.

구례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한 홍보영상 제작과 댓글 반응은 구례군민의 유치 열기를 뜨겁게 하고 있다.

양수발전소 후보지인 문척면 주민 93.4%가 양수발전소 유치에 동의의사를 밝혔고 수몰지에 들어가는 10여 가구도 동의서를 제출했다.

문척면 주민들로 구성된 100여 명의 ‘문척면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와 군민과 향우로 이뤄진 3000여 명의 ‘구례 양수발전소 유치 서포터즈’도 맹활약 중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24차례 설명회 및 견학을 실시한 결과 많은 군민들이 양수발



구례군 주민들이 출연한 구례양수발전소 홍보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4000회를 넘겨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구례군 제공

전소 유치를 염원하고 응원해 주고 있다”며 “입지 여건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례가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례군 문척면 어르신들의 따뜻한 홍보영상은 유튜브에 접속한 후 ‘양수리 전원일기’로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 장흥군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장흥군은 4일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병문안 문화개선 조성과 빈대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장흥군 의사회·약사회, 보건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장흥군은 군민 인식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병문안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 마련했다. 현재까지 빈대출몰·피해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전국 곳곳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 발생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빈대 예방 수칙을 설명하고 물리적·화학적 방제 방법을 병행했다.

참석자들은 ‘확인하기, 자제하기, 지켜주기’란 3대 수칙을 통해 올바른 병문안 문화를 조성하여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홍보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캠페인을 계기로 올바른 병문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빈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순천 낙안면 새마을부녀회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낙안면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1일 낙안면 경로당과 홀로 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김장 김치를 나누고 안부를 살폈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김장 나누기 행사는 순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지사장 임경희)의 지원으로 낙안면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400여 포기를 담갔으며 36개 마을 42개소 경로당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홀몸 어르신 30세대에 전달했다.

낙안면과 이장협의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등도 함께 참여하여 훈훈한 정을 느끼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낙안면 새마을부녀회가 낙안면 경로당과 홀로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김치 400포기를 담가 36개마을 42곳 경로당과 복지 사각지대 홀몸 어르신 30세대에 전달했다. 순천시 제공

## 천연기념물 크고니 먹이활동 순천만 새섬매자기 복원 습지

순천시는 천연기념물 201호 크고니가 순천만 인근 농경지에 조성한 새섬매자기 복원 습지에서 먹이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크고니는 기러기목 오리과에 속하는 겨울 철새로 사초와 새섬매자기 알뿌리 등 주로 식물의 뿌리나 줄기를 먹으며 월동한다.

지난달 5일 크고니 7마리가 순천만갯벌과 하천에서 관찰됐으나, 새섬매자기 복원 습지에서 먹이활동을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12년 순천만에서 176마리까지 월동했던 크고니가 2022년 관찰되지 않자, 올해 연초부터 크고니의 먹이원인 새섬매자기 복원 사업을 착수했다.

새섬매자기 종자를 손 모내기 방식으로 농경지1만8000㎡와 갯벌 1㎡에 시험 식재, 생육 과정을 매일 모니터링해 일지를 작성하고 새섬매자기를 육묘장에서 증식해 이식하는 방식보다 순천만 인근 국공유지에 노지 식재하는 차별화된 복원 방법을 제시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동천하구 생태 축을 복원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도시의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8일 출범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8일 출범식을 갖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항해를 시작한다.

여수시는 오는 8일 여수문화홀에서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섬 박람회 개최를 선포하고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조직위는 20여 명의 임원진과 함께 1차 2본부 1실 8부 형태의 사무처로 구성됐다. 조직위는 행사장 조성, 전시 연출, 행사 운영, 홍보, 수익사업, 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범식에는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과 기관

·단체장, 발기인, 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조직위 성공적 첫발을 힘 실을 예정이다. 행사는 권역별 여수의 섬 주민이 직접 참여해 섬과 섬을 잇는 섬 박람회 성공 개최 세리머니와 비전 선포 퍼포먼스 등을 통해 섬 박람회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기념행사 후 창립총회에서는 섬 박람회 개최 시기 변경 및 기간 연장, 민간위원장 임명, 제규정 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조직위원회 출범으로 그간 여수시가 섬 박람회 성공개최

를 위해 준비했던 사항들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전남도와 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꿈꾸는 섬의 도시, 여수 제2도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 8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이후, 2022년 9월부터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립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발기인 총회와 설립 등기 등 설립 절차를 밟아왔다.

타 박람회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설립 기간을 여수시는 4개월가량 단축하며 박람회 개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확정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산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적대봉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는 총 사업비 80억 원(국특 52억, 군비 28억)

이 투입된다. 금산면 적대봉 일원의 160ha 부지에워케이션(Worcation)이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포레스트 워케이션 센터, 숙박시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휴양림 내 산책로 등 편의·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고흥군은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위한 타당성 평가용역을 진

행 중이며,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 완료 후 실시설계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적대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군민의 건강한 삶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산림환경 요소를 활용해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전국의 기업단체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 공간과 숙박시설 등 시설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기람 기자

## 토양전문가 37인 배출 보성생명농업대학

보성군은 지난 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토양전문가반 졸업자 및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기 보성생명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토양관리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토양전문가반’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약 8개월간 총 17회, 80시간에 걸쳐 추진됐다.

이날 졸업식은 개회식, 우수 교육생 표창, 졸업증 전달, 기념 촬영 및 졸업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총 27명이 졸업하고 10명이 이수했다.

보성생명농업대학은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정예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2011년 제1기 한우전문반을 시작으로 올해 제13기 토양전문가 과정까지 정예 농업인 510명을 배출했다.

특히, 토양관리 전문가 및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를 활용해 토양의 생성 과정,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징 등 기초적인 과정과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교육(친환경유기농자재 제조, 토양검정실을 활용한 토양시비처방서 발급 등), 선진지 견학 등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 학습을 진행했다.

토양전문가반 졸업생 박모씨는 “올해 보성생명농업대학(토양전문가반)을 입학해 토양과 관련된 교육을 듣고 실제로 교육 중 배운 내용을 농가에 활용해 올해 농사가 정말 잘 됐다”면서 “앞으로도 보성의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예로부터 농사를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중요한 것이 토양”이라며,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줌과 동시에 식물체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토양처럼 여러분이 보성 농업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